

시애틀 Seattle 한국학 연구의 요람



사진 1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East Asia Library

워싱턴대학교 도서관 Palais Papers

미국 서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다. 지역적으로 아시아와 밀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아시아인들이 서부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 지역 연구자들의 분석이다.

서부 지역에서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와 함께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워싱턴주 시애틀(Seattle, The State of Washington)에 소재하고 있는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The University of Washington East Asia Library)이다. ^{사진 1}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은 1937년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이 구입한 중국문학작품을 기증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까지 콜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기증받은 자료와 록펠러 재단이 추가로 구입한 자료들로 2만 여 권의 장서를 구성하게 되나, 현재 대학원생들의 도서관인 수잘로 도서관(Suzzallo Library)에서 "Oriental Seminar Room"으로 자료의 정리 작업이나 배가 없이 교수들의 요청에 의한 이용 서비스만을 제공했었다. 1946년 워싱턴대학교의 동아시아 연구소 설립과 함께 "Oriental Seminar Room"은 극동지역도서관(Far Eastern Library)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1948년 일본어 장서 수집에 이어 2차 세계 대전 동안 미육군의 교육을 목적으로 소규모의 한국어 장서를 수집하면서 한국학 자료실의 기틀도 마련하게 된다.

1950년~1960년대를 거치며 중국어와 일본어 자료를 구입하면서 점차적으로 아시아 장서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고, 1971년 고웬홀(Gowen Hall)로 옮겨 현재의 동아시아 도서관(East Asia Library)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이 한국에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Palais Papers를 소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워싱턴대학교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인 국제정치관계학부

의 극동아시아 및 러시아 연구 프로그램, 동아시아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1943년부터는 한국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제임스 버나드 팔레(James Bernard Palais)¹ 교수가 있었다.

제임스 팔레 교수는 1955년 하버드대학교(The Harvard University)에서 미국 역사 학사학위를 받았고, 1960년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일본사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1968년 하버드대학교에서 미국 내 독보적인 한국학 연구자 중의 한명이었던 와그너 교수(Edward E. Wagner)²의 지도 아래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68년 워싱턴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에는 국제정치학부에서 근대 일본사와 근대 중국사 강의를 했었고, 한국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근현대사 강의를 하면서 워싱턴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을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발전시키는 업적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당시 그의 지도를 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어 현재 국·내외 한국학 연구의 계보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시카고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브루스 커밍스(Bruce Cummings)³ 박사를 꼽을 수 있다.

200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팔레 교수의 동아시아 및 한국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역사학자답게 개인 기록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놓아 워싱턴대학교 스페셜 컬렉션(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y Special Collection)의 아키비스트도 감탄할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 워싱턴대학교 스페셜 컬렉션에서 소장 중인 Palais Papers는 워싱턴대학교 교수 재임 시절의 강의 노트, 상세한 주석을 첨부한 학생들의 제출 자료들, 개인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수많은 참고자료, 자료를 보기 위하여 공부한 한자와 한글 단어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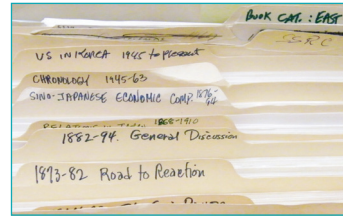


사진 2 Cambridge History of Korea 원고들

사진 3 강의 노트 (Lecture Note)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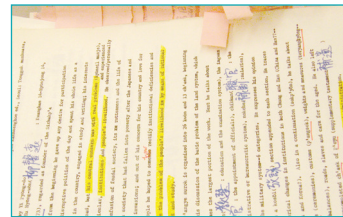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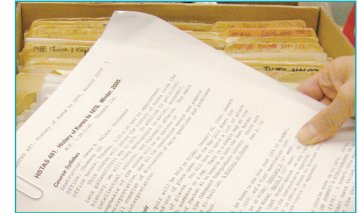



사진 4 유형원의 반계수록 연구 자료

장, 그리고 한국의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장 재임 시절의 강의 자료들과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손에 놓지 못했던 Cambridge History of Korea 원고들이 주제 또는 인명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총 45Box에 수록되어 있다. 사진 2

특히, 동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들이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 강의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강의 노트들은 현재 한국학을 연구하는 국외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진 3 한국과 주변국(중국,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과 조선 시대 노비 제도와 당파 제도에 대한 수많은 연구 자료들, 특히 유형원의 반계수를 영문으로 번역하기 위하여 수집하고 기록해 놓은 자료들은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4 또한 다양한 언어들로 된 자료들을 보고 이해하기 위하여 기록한 단어 연습장에서는 연구자로서 팔레 교수의 노력과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외 소재 한국학 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워싱턴대학교 도서관의 Palais Papers를 조사하였고, 향후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디지털 영인의 형태로 수집하고, 자료의 다양한 접근 및 이해를 돕기 위한 해제가 포함된 디지털컬렉션을 구축하여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 강민기 정책자료과

1. James B. Palais(1934~2006). Professor.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장 역임(2002~2004).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ongwon and the Late Choson Dynasty』가 〈유교적 경제론과 조선의 제도들 : 유형원과 조선 후기〉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번역되어 출판되었음.

2. Edward E. Wagner(1924~2001). Professor. The Harvard University. 『Achievement and Ascription in Joseon Dynasty』가 〈조선 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으로 국내에서 번역 출판되었음.

3. Bruce Cummings(1943~). Professor. The University of Chicago. 〈한국 현대사〉, 〈한국 전쟁의 기원〉, 〈김정일 코드〉 등이 국내에서 번역 출판되었음.

4. 팔레 교수는 캠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총 4권으로 출판하려고 했던 『Cambridge History of Korea』의 총편집장을 맡고 있었으며, 교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 저자들의 원고 초안과 본인의 원고 초안이 Box에 수록되어 있다. 아쉽게도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세계사 시리즈에서 한국사는 결국 출판되지 못했다.